



계율, 안지키나 못지키나?

한국불교는 계율에 한정해서 말하는 한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종단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다. 수계는 하지만 계율은 지키지 않는다. 사실 수계를 하지 않으면 불교도라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불교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고, 불교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유사불교 신도는 가능하지만 불교도는 아닌 것이다. 바로, 계율에 입각한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가 아난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규정해 3학이라 정의한다. 진실하게 계율을 지키는데서 선정과 지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초기불교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언어를 바

전통은 존중 실천엔 '뒷짐' 합리적 대안 나와야 할 때 법답게 살려는 노력 필요

되어 있다. 여기서 언어와 행위, 생활, 정진은 의식의 발로라는 점에서 계율은 몸과 언어와 의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시사한다.

불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과 민족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율에 따라 불교도인이 아난가를 관가름하는 것만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불교계는 많은 종단이 난립하고 있다. 각 종단마다 각자의 주의주장 속에서 각각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구 종단, 대처종단, 법사종단이 그것이다. 여기서 각 종단의 구분에 따라 우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종단의 성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조계종단만 해도 그렇다. 250계를 수지하지만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저버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처종단이나 법사종단은 250계가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한국불교는 당나라 시대에 도선율사에 의해 수립된 남산율종의 전통을 엄격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문불교의 영향권에 있는 불교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사불율>이다.

전통은 있지만 지킬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각 종단의 형편에 따라 합리적인 계율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살생, 투도, 사음, 마를 금지하는 4바라미안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제가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불교적 신행의 출발점은 계율을 지키는 데 있다.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으며, 갖된 음행에서 벗어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황논리에 어쩔 수 없이 파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내 참회하고 계율의 근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제가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차자석(본지 삼일본살위원)>

문광부 을 불교관련 예산 139억6천만원 불교문화 활성화 기반 다진다

신규사업 70여억원 '지원'

정부의 내년도 문화 예산 중 불교관련 예산이 139억6천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와 관련, 5개의 신규사업에 69억7천만원이 편성됨으로써 내년도 불교문화 활성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불교관련 예산을 포함한 1조1천8백39억원의 2004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문화부 예산에 따르면, 불교 관련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는 △세계여성불자대회 지원 2억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조계종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지원 31억7천1백만원 △한일 공동 조대장경 DB 구축 3억원 △태고

종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 건립 지원 30억원 등 모두 69억7천1백만원이다.

이처럼 불교문화와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교문화의 가치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 1차년도에 31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2006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22억원의 국고가 지원돼 공연·연구·교육·체험·산업 육성 시설 등을 갖춘으로써 불교문화를 아우르는 불교문화종합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전통사찰보존정비 지원 56억3천1백만원 △전통사

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억6천2백만원 △문화재 일제조사 5억원 △각종 행사 지원금 3억여원 등 69억9천3백만원이다.

문화재청의 2004년 예산은 총 3천5백53억3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예산(3천3백53억 1천8백만원)에 비해 3.5% 증액됐다. 이 가운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지난해보다 1백억 증가한 1천8백55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남북한문화재 종합학술 연구와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사업, 동산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난 경보기 설치비에 각각 3억, 4억,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해외소장 전적문화재 조사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실시해온 국외유출 문화재 일제조사와 통합 운영된다.

한명우·오유진 기자

“새해의 포교 원력 세워요” 조계종 10일 경주서 포교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형)은 1월 10~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과 석굴암, 불국사 등지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각 교구 분사 포교 소임 스님, 조계종 산하 포교·신도·직장직능 단체 대표자 등 200여 명이 모여 단기간 유대를 강화하고 새해 포교의 원력을 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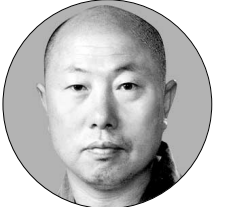
10일 오후 6시 경주문화회관에

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교전진대회는 신년 하례식과 단체 소개 위주에서 벗어나 단체 간 단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돋우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11일에는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 고불식을 치르고, 이어 해맞이, 통일대종 타종 등으로 새해 결의를 다짐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총무원 인사 단행

- 기획실장 여연 스님
- 재무부장 보정 스님
- 사서실장 현담 스님



◇여연 스님



◇보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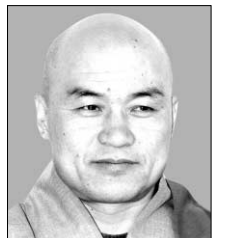
◇현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 총무원 기획실장에 여연 스님(대흥사 일지암 암주), 재무부장에 보정 스님(선봉사 주지), 사서실장에 현담 스님(전 능인포교당 주지)을 새로 임명하는 등의 부·국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기획실장에 정범 스님, 감사국장에 환적 스님, 재정국장에 각원 스님, 홍보국장에 혜오 스님, 조사국장에 태진 스님, 상임감찰에 노경, 대인, 정호 스님이 각각 신규 임명 또는 전보 발령됐다.

기획실장이었던 현오 스님은 총무원장 정책특별보좌관, 사서실장이었던 정학 스님은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됐고, 보정 스님이 재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선봉사 주지에는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한명우 기자

송광사 신임주지 영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지난해 12월 30일 영조 스님(사진)에게 제1교구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영조 스님은 현 주자인 현봉 스님의 임기가 오는 1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새 주지로 선임됐다.

보정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영조 스님은 1968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3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71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제11대 중앙총회회원을 지냈으며, 84년·89년·97~2001년까지 광주 증심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고침·사과의 말씀

454호 31면에 게재된 정여 스

님의 얼굴사진 자리에 정관 스님의 사진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두 스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 부결을” 불교대책위, 구랍 29일 연등시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18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조계사 일주문 등지에서 '파병반대 불교평화연등시위'를 개최하고, 국회에 파병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불교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익론을 앞세워 국회에서 ‘이라크파병동의안’을 비준할 경우,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전민 불자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이라크파병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불교대책위 관계자 30여명이 가슴에 파병반대 스티커를 부착하고 연등을 든 채로 조계사 일주문을 시작, 인사등을 지나 조계사 해탈문으로 걸어가는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특위 “사설사업 6월까지 조사”

조계종 중앙총회 사설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2004년 안으로 사설사업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종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등록 및 미등록 사설사업 현황 조사를 벌이며, 7~12월에는 사설사업에 관한 종단법령 정비 및 사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단 지원 방안 마련 차원에서 사설사업 운영현황 및 관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백익신을 거꾸로 하고 감정의 끈을 벗어내다 서운 스님 지음 (삼보통역사 발행) 200여 한권	바람 스리는 조사의 노랫소리 성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50여 한권	계곡을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 법 지환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부처도 죽고 조사는 죽고 쇠나래도 꽃이 피니 종성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금강산 산정에 비유물이 갈아낸 해를 놓아 달이 오르고 대정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200여 한권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만년초 진제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상구보리 속에는 배움의 본뜻을 찾아 진은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150여 한권	산악대기 뿌리 없는 초목은 배움의 불이 없으니 재정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주장자를 들으니 살피는 태도가 배워야 할 것 지환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200여 한권	물 흐르고 꽃이 피니 영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200여 한권
목마는 길게 물고 들사슴은 울음 추비 화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00여 한권	강악산 마루에 일월이 높고 이은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100여 한권	침묵하지 아니하면 맑고 적멸에서 벗어난다 인환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흐르며 떠나 연애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미혹한 사람은 갈아낸 해를 놓아 달이 오르고 해성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50여 한권	나 혼자인데 갈아낸 해를 놓아 달이 오르고 각성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50여 한권	물결이 바깥이 갈아낸 해를 놓아 달이 오르고 영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50여 한권	꽃피리라 하나 별아는 데서 천지가 진동하고 해경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하루하루, 그루터기, 유물들이 수놓아진 울음 날리고 진리 도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말 밑에 달은 길은 갈아내면 되는 것 영환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00여 한권
푸른 잎부리를 지나며 신발이 울음 없네 성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생만을 나누어 주신 영혼의 어머니 효관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50여 한권	법 지혜는 허물이 없는데 정소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사비가 정보로 정보가 사비 도운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일월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 성공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나의 황생, 부처님 생령 만담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00여 한권	물위에 비친 달빛이 이루어진 혼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음 정무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250여 한권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는 생사를 이룬다 일후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나루로 만든 울음소리 해준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00여 한권	나의 나로 따로 있는 곳에선 연꽃은 피어내고 법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100여 한권
물은 푸르고 꽃은 붉는데 서운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마음 한번 바꾸면 기기가 극락 법성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조근 따라 생겨난 것은 조근 따라 사라지는 것 도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00여 한권	돌아서는 피리를 부는 누비 영조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천지는 나와 더불어 그 뿌리가 깊고 구암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지마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200여 한권	신화로 이어진 깨달음의 길 법무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00여 한권	평화롭고 싶은 마음은 법다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350여 한권	나의 또 하나 다른 생령으로 피어나는 울음 진담 스님 지음 (영광사 발행) 400여 한권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